

건강 칼럼

유전질환 관련 상식의 허와 실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갈망이 늘어남과 동시에 가족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전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전질환은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고풍 같지만 잘 알지 못해서일 뿐 그 정체를 양상만 잘 파악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 우유를 마셔도 설사하지 않는 유전자가 있다?

우유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부족할 경우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한다. 아기 때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당 분해 효소인 락타아제가 있어 모유나 분유를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효소가 줄어들어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서유럽 인종 중 RS4988235(T)라는 유전자를 가진 인종은 이 효소가 계속 생성돼 우유를 마셔도 설사를 하지 않는다.

▲ 시력도 유전이 된다?

시력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많다. 그렇기에 부모님의 시력이 내게 유전될 수 있다. 그러나 유전 양상과 유전자의 특징에 따라 유전될 가능성과 그 확률은 달라진다. 따라서 내 시력이 100% 유전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 성격도 유전이 된다?

최근 유전학의 발달로 유전자의 역할이 다양한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머리카락과 눈동자, 피부 색깔과 같은 신체적 특징을 전하는 DNA는 전체 DNA의 2%를 차지하며 나머지 98%는 비부호화 DNA이다. 이는 우리가 물려받는 다양한 감정, 행동, 성격특성을 담는다. 그러나 성격 형성에는 유전적 요소와 더불어 환경적인 요소가 함께 영향을 미친다.

▲ 유전자보다 환경이 인간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관여한다.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

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환경적 요소를 변화시킴으로써 유전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선천성 장애는 반드시 유전된다?

선천성 장애가 반드시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선천성 장애를 가진 부모에게서 정상인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다. 특히 선천성 장애를 가진 부모라면 임신을 계획하기 전 상담을 통해 장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장애가 유전될 확률을 알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건강한 자녀를 가질 수 있다.

▲ 부모가 모두 건강하면 유전질환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

대부분 유전질환을 가진 자녀는

정상인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부모가 정상이지만 변형된 유전자가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보인자일 경우 다중증후군, 혈우병 같은 질환을 가진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 부모는 정상이지만 돌연변이에 의해 수정란에서 처음으로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 희귀 유전질환은 불치병이다?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뿐 아니라 희귀질환에 대한 관리와 예방이 가능해져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전질환은 가족 내 재발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인 상담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질환의 가능한 경과와 유용한 관리 사항을 포함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재발 위험도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유전자를 분석해 희귀 유전질환 뿐 아니라 암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한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질병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명득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전북지부 원장

사설

괜찮은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

새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고 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 지금이다. 전북도는 그에 부응하는 자세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다들 잘 알고 있는대로 우리 지역은 고령 인구의 증가 현상이 심각하다. 이 답답한 현실을 두고서 그 이유를 지적하려면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부족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여기 거듭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전북도가 일자리를 더 늘려야겠다. 도내에 젊은 미취업자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은 우울한 일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지자체들은 일자리 창출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평가해야 한다. 일자리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지만 젊은 미취업자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들은 미취업자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러는 것인지 헤아려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들은 미취업자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때문에 그럴 거라는 것을 말이다. 이제 젊은 미취업자들의 심사를 읽어주는 안 된다.

일자리 만족도를 생각해야 한다. 시간제나 기간제 같은 일자리 들로는 아무래도 만족도를 채워주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그런 까닭에 도내 젊은이들의 결혼 비율이 낮고 또 그런 까닭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쪼여볼 게 있다. 약속했던만큼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였다면 미취업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터이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괜찮은 일자리가 아닌데도 성과가 좋다면 부풀리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보도가 정직했다면 오늘날 어찌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겠는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일자리의 창출은 신뢰성이 중요하다. 새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더 두고 보아야 할 시점이기는 하다. 그래도 전북도와 각 시군지자체는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어야겠다.

현안 추진 행보 구체적이어야 한다

새정부가 진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전북도는 지역 현안에 주목해야겠다. 앞으로는 행보가 더욱 구체적이어야한다는 주문이다. 구체적인 작업이 없이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두 번 건의 해보고 안 되면 뒤로 물러나기 과연 몇 번이었는가. 새정부가 연일 신선한 행보를 보여주는 지금이야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발 때이다. 전북 발전 논리를 다듬는 가운데 의지를 다져야 한다. 기필코 현안을 성취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말이다.

전북도는 그 행보가 뚜렷해야 한다. 무슨 현안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이다. 기필코 현안을 성취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 지금 지역 발전 사업의 맨 앞장에 있는 새만금만 해도 그렇다. 오랜 세월 내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그 변화된 모습이 미미하다. 지난 정부 때 논란이 되었던 수도권의 규제 완화 문제도, U턴기업 세제 혜택 발안도 수그러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도내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작업이 인

증 샷을 남기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수도권의 횡포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 철폐를 밀어부치려는 저 수도권 인사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수도권인 사람보다 일의 강도가 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문이다. 날마다 발전 현안 사업에 구체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발전 현안을 챙기고 있다 해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도민들은 전북도가 현안 추진을 말할 때마다 그 기대가 크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한 기다림의 연속이다. 추진을 위한 행보가 구체적이어야겠다고 거듭 주문하는 이유는 그래서이다.

전북도는 지역발전 현안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선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 중간점에서 타협을 보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도민들은 전북도를 지켜보고 있다. 전북도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발전 현안 추진 성취를 위해 뚜렷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독자제언

일쫓달쫓 유턴 신호 바르게 알자

지역경찰 활동을 하다 보면 불법유턴 차량을 발견하고 단속을 하는데 운전자들은 왜 내가 위반되는지? 언제 유턴을 해야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애매한 교통 시설물, 그 중에서도 유턴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한다.

첫째, 유턴구역선(흰색점선)과 유턴지시표지가 있으나 '적색 신호 시', '보행 신호 시 유턴 가능' 등과 같은 보조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둘째, 유턴구역선(흰색점선)과 유턴지시표지, 보조표지판도 함께 있는 경우, 보조표지판의 지시에 맞추어 유턴하면 된다.

단, 직진 신호시 가능할 경우에는 비보호 유턴에 해당하므로 더욱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고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시, 좌회전 신호 시 가능한 경우에는 왼쪽도로에서 우회전차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등 각 상황에 알맞은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는 있으나 유턴허용표지판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곳에서 유턴을 하였다면 신호기의 직진, 정지, 주의명령을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넷째,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도 없고 유턴허용표지판도 없는 경우는 유턴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

위와 같이 올바른 통행방법을 운전자들이 숙지하여 실천한다면, 유턴 신호를 더욱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이륜차 배달업 속도전, 운전자 안전이 '최우선'

퀵서비스와 요식업체의 배달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배달하는 이륜차에 교통법규 준수보다 '빨리빨리'를 강조하다 보니 이륜차 배달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쟁 속에서 기초적 법질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럴 것이다.

좌회전·불법 U턴 등 교통신호는 가볍게 위반하기 일쑤이고 인도와 횡단보도는 물론 차량이 질주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진입하는 배달 이륜차를 종종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아슬한 운행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요식업의 이륜차 배달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지난해만 1600여 명이고 사망자는 25명에 이른다. 사고 및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안전벨트나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 이륜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륜차의 위험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지만 오도바이는 여전히 법을 넘나들며 도로위를 질주하고 있다.

30분 내 신속배달 등 시간 단축을 위한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은 위험한 운행을 재촉한다. 실적과 관련이 있다 보니 단속의 효과는 그때뿐으로 범칙금을 대폭 인상한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법과 질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배달서비스 개선과 이륜차 운전자 개개인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자의식 함양으로 이륜차 배달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